

보도시점 2024. 2. 1.(목) 16:00 배포 2024. 2. 1.(목) 11:00

한덕수 국무총리, 강릉 찾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적 마무리 감사 표시

- IOC 위원장과 환담, 대회 성공적 마무리에 감사 표시
- 자원봉사자·운영요원·군·소방·경찰·의료 지원 인력에 감사와 격려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일(목) 오후,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(이하 강원2024)의 마지막 날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하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 위원장과 환담을 갖고, 강원 2024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노력해온 IOC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.
 - 한 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2024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, “앞으로도 IOC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발전과 국제사회 연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- 한 총리는 또한 경기를 관람하고 경기 운영인력들을 격려했다.
 - 특히,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기여한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총 4천여 명의 경기 운영인력과 군·경찰·소방·의료 지원인력 2천여 명의 활약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.
 - 한 총리는 자원봉사자 등 모든 경기운영인력들이 한파와 대설 등 어려운 기상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선수와 관중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였다.
 - 한편, 한 총리는 이제 16살이 된 최연소 자원봉사자(최정현 군)와 1993년 대전엑스포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주요 국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온 봉사자(장경호 어르신)에게는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- 한 총리는 피겨 스케이팅 팀 이벤트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하였다.
 - 이날 응원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도 함께 했으며, 한 총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많은 유망주가 발굴된 것도 대회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.
 - ※ IOC에서 주관하는 피겨대회에서 한국최초 남자 금메달리스트 김현겸 선수(18세),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서 한국최초 은메달리스트 윤신이 선수(16세), 프리스타일 모글 종목에서 금·은메달 동시 획득한 이윤승 선수(17세) 등
-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(IOC)가 스포츠와 문화·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청소년의 연대와 교류 촉진을 위해 창설한 대회이다.
 - 제4회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'24.1.19일부터 2.1일까지 강원 강릉, 평창, 정선, 횡성에서 78개국 1,900여 명의 청소년선수 참가 하에 개최되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김부선 (044-200-2328)
	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김윤아 (044-200-2330)

